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이야기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올해의 독서 흐름

올해 출판시장은 20~30%의 매출부진을 보인 가운데 90만부 팔린 《하늘이여 땅이여》(해냄)가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할 듯하다. 이 뒤를 《왜란종결자》(들녘)가 75만부로 바짝 뒤쫓고 있다. 교보·영풍·종로 3개 대형서점과 한국출판유통(주)·송인 2개 도매상,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의 베스트셀러를 집계한 결과, 비록 권좌는 내주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소설류가 강세. 상위 50위권 내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이레)를 비롯, 일상의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책들이 20여권 안팎 올랐다. 끝이 안보이는 불황에 위안이 필요한 모양이다. 《흥어》(문이당)와 《모순》(살림)은 재작년 《아버지》 열풍을 잇는 가족소설 계보. 모두 황폐한 현실을 잊게 하는 '착한 생각'을 담았다.

한편 98년의 출판시장은 이례적으로 경제·경영서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꾸준히 등장했고, 소설부문에서는 적게는 4~5권, 많게는 10여권에 달하는 환상소설이 청소년 독자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대중문화시대의 시작을 알리듯 TV 스타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서점으로 물러나왔다. 화려함 뒤에 감추어진 삶의 고단함에 독자들의 감정이 이입된 듯 텔런트 박원숙씨가 7월 말 출간한 《열흘 운 년이 보름은 못 울어》(J-pub)는 지금까지 약 1달 동안 20만부 가까이 팔렸다.

경제·경영 실용서도 두루 읽혀

상위권을 석권한 소설부문에서 두드러진 것은 《드래곤 라자》(민음사), 《왜란종결자》(들녘), 《링》(씨앤씨미디어), 《용의 신전》(자음과모음) 등의 환상소설이 PC통신세대인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모은 것. 미혼의 직장 여성들이 주도했던 출판시장의 패권이 청소년층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도 불황의 여파로 해석한다. 《왜란종결자》를 펴낸 들녘 편집부에서는 "실직이나 감봉 조치로 움츠러든 장년층보다 직접 벌지 않고 용돈을 타서 쓰는 청소년층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

대신 장년층은 경제·경영서로 몰렸다. 경제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찾는 진지한 '보고서'와 경제상식책, 기업인들의 자전예세이 등이 두루 읽혔다. 《한국보고서》(매경)와

올해 출판시장은 20~30%의 매출부진으로 허덕인 가운데 90만부가 팔린 김진명의 소설 《하늘이여 땅이여》가 가장 많이 읽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독자들은 불황 속에 따뜻한 위안을 던져주는 책들에 관심을 보였고, 각종 창업 관련서 등 경제 실용서도 강세를 보였다.

《IMF와 한국 경제》(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원론, 《경제기사는 돈이다》(거름), 《손바닥경제》(사계절) 같은 생활 속의 경제상식, 정주영·이건희의 자전예세이, 대우의 세계경영을 분석한 《세계가 열린다 미래가 보인다》(해냄) 등 실용적인 '생계형 독서'는 경제·경영서 분야의 한 특징이다. 《불황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형선), 《개인수출입》(은혜), 《한국의 소호 아이템 201가지》(청아) 등이 실직가장들의 방향키가 돼주었다.

경제·경영실용서가 강세를 보인 출판시장의 한편에서는 '연예인 잡지(雜誌)'가 우후죽순처럼 쏟아졌다. 《열흘 운 년이 보름은 못 울어》 이후 전원주·서정희·신은경·최진실 등의 인기인들이 책을 냈고, 이들은 TV를 심판할용, 주부들을 대상으로 책을 홍보했다. 인기연예인은 아니지만 《구성애의 성교육》(석탑)은 TV가 책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 이외에도 TV프로그램이 출판 경향을 만들어낸 경우도 있다. 과학분야가 바로 그것.

과학분야는 쿤이나 카프라의 저작 등 몇몇 스테디셀러 외에 《단숨에 깨치는 과학상식》(웅진), 《알짜배기 과학상식》(진선) 등이 눈에 띈다. 이 책들은 생활 속의 과학원리를 찾아보고, 실험으로 증명하는 TV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 단편적인 지식을 담은 것이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출판인들은 출판이 TV나 잡지와 교접하면서 교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까 우려한다. 생각의나무 박



올해 많이 팔린 책들. 사회문제에 비판적인 책과 함께 현실도피적인 책들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광성 대표는 "대중문화시대가 열리는 지금이 바로 출판의 정체성과 방향을 명확히 할 때"라고 말한다.

사회풍자류와 탈역사적 내용 공존

문학상 수상작 발표나 정기간행물이 나오는 시기가 되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뒤바뀌어 한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지는 현상도 특이하다. 겨울에 발표되는 《이상문학상 수상작》은 1월부터 서너달 1·2위를 맴돌며 8월 정도까지 10위권 안을 지키다가 10월 이후에는 집계에서 사라진다. 또, 계간 《인물과 사상》(개마고원)은 계절이 시작될 무렵이면 인문부문 1위까지 오르지만 한두달이 지나면 찾아보기 힘들어진다. 관계자들은 꼭 사보아야 할 책만을 정해두고 사는 계획 구매의 한 양상으로 분석한다.

이제 8호째 나온 《인물과 사상》은 1인 저널이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강준만 교수 혼자서 책 한권을 만들다시피하는 것도 그렇지만 직설적 어조로 언론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회 곳곳의 부조리를 다소 거친 어조로 비판한 《딴지일보》(자작나무)와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베스트셀러)가 사랑받은 것은 시니컬해진 독자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금의 위기를 가져온 전반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책을 찾으면서 한편으로 '류시화' 풍의 책을 중심으로 일군의 탈역사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책들도 사랑받고 있

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시가있는마을), 《작은 이야기》(샘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더라면》(열린원),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청아) 등인데, 읽기 쉽고 감정적으로 위안을 주기는 하지만 삶과 사회에 대한 치열함이 부족하다는 평이다. 하반기 시장을 휩쓸고 있는 《광수생각》(소담)도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짙막한 말에 감동을 담으려 한다는 점에서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소설부문에서는 일본문화개방이 가시화되면서 일본문화에 관한 책도 관심을 끌었다.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명진출판), 《J.J가 온다》(해냄), 《클릭 일본문화》(한겨레신문사) 등이 제법 많이 팔린 관련서들. 컴퓨터 실용서는 영진출판사의 《할 수 있다 시리즈》가 석권했고, 대부분 학습과 관련된 책이 점령한 어린이 분야는 어른들 독서행태를 따라 《만화로 보는 조선왕조 500년》, 《신라왕조 1000년》(이상 능인)과 한 권에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경제적인 책 《~하나씩 ~이야기》 시리즈가 어른들의 얇은 주머니 때문인지 사랑을 받았다.

— 이현주 기자